

한인 구직자들 “뉴욕서 일했으면...”

근무지 선호도 1위...서울·싱가포르·LA 순

제일인재기획 251명 설문 결과

뉴욕시가 미주 한인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역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이 뉴욕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제일인재기획(사장 김성민) 미주법인은 최근 미주 전역의 한인 구직자(경력자 포함) 251명을 대상으로 ‘미주 한인 직장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뉴욕을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역으로 선택한 이들이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설문 대상자 중 뉴욕·뉴저지에서 현재 근무 중이거나 대학을 나온 인원은 전체 응답자의 35%였다.

한인기업이 가장 많이 있는 LA 지역에서 일하고 싶

다는 구직자들은 13%에 불과해 2위인 서울(28%)과 3위인 싱가포르(15%)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MBA 졸업생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 채용하고 경제 규모도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4대 기업과 미래에셋 등 금융회사들은 북미주 출신 한인 졸업생과 경력자를 공개 채용해 왔다.

한인 직장인들이 회사를 옮기는 가장 큰 이유로는 급여가 꼽혔다. 설문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54%가 급여 때문에 직장을 옮길 수 있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는 ‘상사 등 직장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여부

가장 일하고 싶은 도시

(단위:%)

1	뉴욕	30
2	서울	28
3	싱가포르	15
4	LA	13
5	상하이	3
6	베이징	1

자료:제일인재기획

(18%)’였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한 응답자도 14%로 3위를 차지했다.

‘가장 선호하는 부서’를 묻는 설문에는 한인 직장인들의 20%가 마케팅, 17%가 매니지먼트를 선택했다. 3위는 14%가 꼽은 인사부였다.

일하고 싶은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직무 만족도가 1위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직무 만족도가 직장 선택에서 중요하다는 질문에 4.3점(7점 만점)을 줬다. 2위는 4.2점을 얻은 급여였다.

제일인재기획 유니스 이 컨설턴트는 “뉴욕은 일자리가 많고 특히 한인 MBA 출신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파인스 쪽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꼽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이 근무 선호 지역 2위를 차지한 것은 환율, 비자문제 등으로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한인 직장인들에게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정연 기자